

3장.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나라를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돌아오라’ 고 호소하신다. 이혼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주시고 그러한 데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신다.

1.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3:1-5)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다시 말씀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 3장 초두에 나오는 것은 신명기 24장의 이혼법에 근거한 질문이다. 그들은 첫 남편을 떠나 간음하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들의 음란과 행악 때문에 땅이 더럽혀져서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쳤다. 풍요의 신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이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한 것에서 바알의 약속이 ‘헛것’ 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알과 바알 숭배자에게 ‘수치’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창녀의 낮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것만 피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 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하여 악을 행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 수치를 모를 뿐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애호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창녀의 낮을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

2.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실패하다 (3:6-11)

오시아 왕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고 불렀으나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증서를 주어서 다른 나라로 내어 쫓았다. 남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하여서 돌과 나무와 행음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유다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하여 거짓을 행하였다. 그리하여 배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³⁾

3.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부르심 (3:12-13)

하나님께서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부르셨다. 여호와는 무한하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구원의 약속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하였다.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며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실을 그들의 죄로 지적하신다. 여호와를 떠난 것을 그들의 죄로 인정하고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다.

4. 아버지와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목자를 보내어 그들을 돌이키실 것임 (3:14-18)

여호와께서는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3:14) 하면서 자기를 ‘아버지’와 ‘남편’으로 제시한다. 유다는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3:4) 하면서 눈앞의 어려움만을 피하게 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호칭을 겹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하신다.

하나님의 경영에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의 회복도 들어 있는데, 그 일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그는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3:15).

3) ‘배역’ [머슈바]으로 번역한 말은 직역하면 ‘돌아선’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고 한다. ‘슈브’라는 단어로 그들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패역’ [바가드]으로 번역한 말은 ‘신실하지 않게 행한’ ‘신실함을 버린’의 의미이다. ‘배역’ [머슈바]이라는 말이 6, 8, 11, 12절에 나오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쇼바브’ [배역]이 14, 22절에 나온다. 돌아오라[슈브]라는 말은 1(x2), 7(x2), 10, 12, 14, 19, 22절 등에 나온다. ‘돌이킴’이라는 주제로 이 장의 내용이 요약된다.

그날에는 그들이 ‘여호와와 언약궤’ 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보좌’ 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열방이 모두 그곳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은 강박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남조와 북조가 합하여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머무를 것이다.

5.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3:19-20)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아들로 간주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라 하고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지 않은 아내처럼 여호와를 버렸다.

6.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수치를 고백함 (3:21-25)

갑자기 민둥산에서 이스라엘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굽은 길을 가고 여호와를 잊었다고 노래한다. 민둥산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인데(2:20, 3:2) 그곳에서 회개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는 ‘배역한 자녀’ 에게 그들의 ‘배역함’ [등 돌림을 고쳐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고 부르신다(참조. 시 80:3, 7, 19).

여호와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 참된 회개의 응답을 한다. 그들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상을 섬긴 것은 헛된 것이며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상을 ‘부끄러운 그것’ 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그들이 수치 중에 놓고 수욕에 덮였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돌이킨 자들이 드리는 진정한 기도이다.

목상과 실천:

참된 회개와 참된 수치

1. 언약궤와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를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그 땅에 사람이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3:16-17)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언약궤와 여호와와 보좌를 대비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 구절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6절을 보면 요시야 때에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서 여호와와 율법을 발견하자 그것에 근거하여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개혁을 하였다. 그러나 7장에서 밝히 드러나듯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 그리고 성전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를 핍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회복된 나라의 모습을 제시할 때에는 언약궤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찾거나 만들지 않고 ‘여호와와 보좌’ 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천명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언약궤 위의 시은 좌에서 통치하시지만, 그러한 수단이 있어야만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오용되는 현실에서 여호와는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선언하신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도 모두 그분의 성으로 불리모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마음’ 에 합한 목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 (3:17)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같은 목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한 새 마음을 얻은 자들이 열조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살 것이다(3:18).

2. 수치를 모르는 것과 수치를 아는 것

1) 수치를 모르는 것

3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가 ‘수치’ 다. 3장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의 장면이다. 그러한 차이를 수치를 모르는 것과 수치를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먼저 3장 첫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와 ‘나의 소시의 애호자’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창조주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3:3) 하고 평가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는 평가는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는 구절 바로 뒤에 나온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황폐케 된 현실을 바르게 알았다면 수치를 아는 것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는 사실을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표시한다.

‘수치를 안다/모른다’ 는 말은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비와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은 바알 신이다. 그러므로 바알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파악하면, 바알은 ‘수치스러운 것’ 이고 바알을 숭배하면 수치스럽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좌절’ 과 ‘실망’ 이라는 의미에서 수치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구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와 ‘남편’ 으로 바르게 알았다면 창녀와 같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모른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수치를 알게 되면 바알의 헛된 것을 알게 되고, 공리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2) 수치를 아는 것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온다. 여호와와 마음에 합한 목자의 활동으로 그들의 악한 마음도 새롭게 된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두 가지를 고백한다. 첫째, 바알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부끄러운 것’ 이라고 지칭하고 그 부끄러운 것이 그들을 삼켰다고 한다.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그들이 수치 중에 놓고 수욕에 덮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데에 있다고 고백한다. 그들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치를 아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새 언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수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임을 본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정당한 수치심을 알려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3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다까? (1, 2절)
2.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결과로 유대 땅에 임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3절)
3. 1)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다까? (8절)
2) 그것을 본 유다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8절)
4. 여호와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오히려 의롭다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여호와는 어떠한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2, 14절)
2) 어떤 분을 주셔서 양육하게 하십니까? (15절)
3) 그들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할 것입니까? (15절)

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인도하실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 1)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생각지도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까? (16절)
 - 2) 예루살렘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17절)
 - 3)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 4) 그때에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5.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23절)